

## '22년에 감소한 공급물량은 이전 정부 공급실적이며, 뉴:홈 50만호('23년 7.6만호)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.

< 보도 내용 (서울경제, 5.31) >

◆ 신규 공공분양 40% 뚝... 서민주거가 불안하다

○ 국토부가 흥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, 22.5월~23.3월 사이 공공분양 승인물량은 1.87만호로 직전 1년('21.5~'22.4) 공급 물량(3.1만호) 대비 39% 감소

○ 수도권에선 76%나 줄어들어 공급부족發 '수급' 우려 커져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작년 말 청년·서민 내집마련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뉴:홈을 5년간('23년~'27년) 이전 정부 대비 3배 이상 많은 50만호를 공급하기로 발표('22.10.26)한 바 있습니다.

< 뉴:홈 공급계획(단위 : 만호) >

'23~'27	'23	'24	'25	'26	'27
50.0	7.6	9.0	10.0	10.4	13.0

- 기사에 제시된 '22년 5월~'23년 3월 중 공공분양주택 승인물량 1.87만호는 대부분 현 정부 출범 전에 수립한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을 토대로 승인한 지난 정부 공급 실적입니다.

○ 따라서, 뉴:홈 50만호 공급계획과 무관한 '22년 공급 실적을 가지고 현 정부의 공급 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.

- 뉴:홈 공급계획 추진 첫 해인 '23년은 이전 정부 연평균 공급물량(2.9만호)의 2배 이상인 총 7.6만호 공급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.

- 국토교통부는 교육환경평가, 지자체 협의 등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절차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뉴:홈 50만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	책임자	과 장	차상헌 (044-201-4505)
		담당자	사무관	김세묵 (044-201-4515)

